

한국어의 수식과 접속 구조에 대한 고찰*

함병호**

-차 례-

1. 서론
2. 수식과 접속의 개념
3. ‘수식+접속’ 구조
 - 3.1. 명사구의 수식과 접속
 - 3.2. 복문의 수식과 접속
4. 접속 부사의 수식과 접속
5. 결론

*이 논문은 제236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전국 학술대회(2022. 7. 16.)에서 발표한 “한국어 문법에서 수식과 접속”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어학에서 수식과 접속 개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수식과 접속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통사 구조를 논의하였다. 먼저 수식과 접속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수식은 피수식어의 의미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적 기능이며 수식 구조에서 핵어에 의존적인 성분이 지니는 통사적 기능이다. 그리고 접속은 두 통사 단위가 연결되는 기능으로, 다양한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어서 명사구와 복문에서 수식과 접속이 모두 적용되는 구조를 살펴보았다. 명사구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필수적으로 결합된 명사구는 ‘① 수식 → ② 접속’의 순차성을 지니는 구조이고, 동격 구성은 ‘① 접속 → ② 수식’의 순차성을 지니는 구조이다. 복문에서 종속절은 ‘① 접속 → ② 수식’의 순차성을 지니는 구조이고 연계 관형사절과 화용 해석의 관형사절은 ‘① 수식 → ② 접속’의 순차성을 지니는 구조이다. 그리고 규범 문법에서 ‘수식+ 접속’의 기능으로 논의되는 접속 부사는 수식 기능이 아닌 접속 기능만 지니고 있다.

주제어: 수식, 접속, 관형격 조사, 동격 구성, 종속절, 연계 관형사절, 접속 부사

1. 서론

문장에서 두 개 이상의 통사 단위가 하나의 통사 단위를 이루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식(修飾)과 접속(接續)이다. 그런데 한국어학에서 문장 구조의 분석을 살펴보면 수식인지 접속인지 모호한 구성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1) 아, 그런데 대표 김철수와 실장 이영희가 와도 그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가. 아: 감탄사 → ① 독립 ② 수식 ③ 접속

나. 그런데: 접속 부사 → ① 접속+수식 ② 접속

다. 대표 김철수: 명사구 → ① 수식 ② 접속+수식

라. 대표 김철수와 실장 이영희: 명사구 → ① 접속 ② 수식

마. 그런데 대표 김철수와 실장 영희가 와도: 종속절
→ ① 접속 ② 수식 ③ 접속+수식

바. 어려운: 관형사절 → ① 수식 ② 수식+접속

위의 (1)에서 제시된 여러 통사 단위들은 선행 연구에서 접속이나 수식 기능을 동시에 가지거나 이 중에서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가)의 독립언인 감탄사는 수식언의 하나로 논의되기도 하고 후행 문장과 접속 구성을 지니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¹⁾ (1나)의 접속 부사는 규범 문법에서 접속과 수식 기능을 모두 지니는 품사로 규정되지만, 접속 부사의 수식 기능을 부정하고 접속사로 설정해야 한다는 다수의 논의가 존재한다.²⁾ (1다)는 동격(同格) 구성으로, 이 구성은 선행 명사구가 수식 기능을 갖지만 일반적인 수식 구조와는 통사적으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논의되었다.³⁾ (1라)에서 접속

1) 감탄사를 수식언에 포함하는 주요 논의에는 최현배(1937/1971), 임유중(1999)가 있고, ‘감탄사, 문장’ 구성을 접속 구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논의에는 함병호(2018)이 있다.

2) 접속 부사의 수식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주요 논의에는 고영근(1993), 조민정(2006), 김원경(2018)이 있다.

3) 동격 구성이 일반적인 수식 구조와 차이가 있다는 논의에는 서정수(1994/2013),

조사 ‘와’에 의한 명사구 접속 구성은 선행 명사구가 후행 명사구에 종속되어 수식 기능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⁴⁾ (1바)의 종속절은 기술 문법에서 부사절로 분석되는 견해가 널리 수용되고 있는데, 종속절의 접속과 수식 기능은 절 논의에서 매우 다양한 이견이 있다. (1바)의 관형사절은 수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식어이지만 절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접속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의 통사 구조가 수식, 접속, ‘수식+접속’으로 매우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통사 구조를 수식과 접속 중에서 무엇으로 분석할 것인지는 한국어 문법의 체계를 설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대표적으로 종속절의 접속 기능 인정 여부에 따라서 한국어의 복문(複文) 체계가 달라진다. 또한 접속 부사의 수식 기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접속사라는 새로운 품사를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수식과 접속 구조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면 ‘접속’과 ‘수식’의 개념이 매우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문법에서 수식과 접속 개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여러 통사 구조에서 수식과 접속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수식과 접속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가 있지만 각 기능이 대등하지 않고 분석의 순차성(順次性)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한국어학에서 일반적으로 수식과 접속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수식과 접속의 특성을 논의한다. 3장에서는 수식과 접속이 모두 나타나는 명사구와 복문의 유형과 특성을 논의한다. 4장에서는 접속 부사의 수식과 접속 기능을 논의한다.

이선용(2007)이 있다.

- 4) 접속 조사에 의한 명사구 접속 구성을 수식 구조로 분석한 논의에는 최호철(1995), 도재학(2018)이 있다.
- 5) 관형사절이 접속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논의에는 유현경(2002), 김건희(2012)가 있다.

2. 수식과 접속의 개념

이 장에서는 수식과 접속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수식은 문법 기술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한국어학 개론서의 색인이나 찾아보기에서는 ‘수식’이라는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수식 구조와 관련하여 문법가들이 수식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식은 문장 성분 중에서 부속 성분인 관형어와 부사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기능이다. 따라서 관형어와 부사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수식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형어와 부사어의 정의(밑줄은 필자)

논자	관형어와 부사어의 정의
남기심 외 (1985/2019)	관형어[매김말]은 체언으로 된 주어, 목적어 같은 문장 성분 앞에 붙어서 그것을 꾸며 주는 말을 이른다.
	부사어[어찌말]은 관형어와 같은 수의적 성분의 하나로 서술어에 덧붙여서 그 뜻을 한정하여 주는 말이다.
구분관 외 (2015)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성분이다.
	부사어도 관형어와 같은 수식 성분으로서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관형어가 일관되게 체언만을 꾸미는 반면, 부사어의 수식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권재일(1992)	관형어는 문장성분 앞에서 그것을 수식하는 문장성분이다.
	부사어는 문장 안에서 서술어를 수식·한정하는 문장성분이다.
서울 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2002)	관형어와 부사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

(2)에서는 관형어와 부사어의 수식 기능을 ‘수식하다’, ‘꾸미다’, ‘한정하다’의 용어로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서 ‘수식하다, 꾸미다, 한정하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수식하다’와 ‘꾸미다’는 문법론의 용어로 제시되고 있으며 ‘피수식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기술되었다.⁶⁾ 그리고 ‘한정’은 문법론의 용어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범위 제한’의 뜻으로 기술되었다.

(3) 가. 수식하다: 『언어』 문장에서, 체언과 용언에 말을 덧붙여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하다.

나. 꾸미다: 『언어』 구나 문장에서 다른 성분의 상태·성질·정도 따위를 자세하게 하거나 분명하게 하다.

다. 한정하다: 수량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하다.

그런데 남기심 외(1985/2019)에서는 관형어는 ‘꾸밈’, 부사어는 ‘한정’으로 기술하고 있고 권재일(1992)에서도 부사어에만 ‘한정’을 추가하고 있어서 관형어와 부사어의 정의에 차이를 보인다. 이는 관형어와 부사어의 분포적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체언의 바로 앞에 위치하지만 부사어는 용언뿐만 아니라 문두에도 위치하고 일부 부사어는 위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⁷⁾

(3)에서 수식의 정의는 의미적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식은 항상 피수식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립적으로 성립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수식은 ‘수식어+ 피수식어’의 구조에서 성립되는 개념이다. 이는 수식을 통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Matthews(1997: 229)에서는 수식(modification)을 ‘핵어(head)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요소를 동반하는 통사적 구성의

6) 수식의 개념에 대한 고찰은 김건희(2012: 1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식을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7) 관형어의 정의에 ‘한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서정수(1994/2013: 435)에서는 관형어를 ‘관형사를 비롯하여 명사나 동사의 관형사형 따위로서 체언 앞에 높여서 그것을 한정하는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 문법에서 수식과 한정이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혁(1995: 235)에서는 ‘한정이나 수식이 용언의 꾸밈과 체언의 꾸밈을 구별할 수 있는 어휘가 아닐 바에는 이러한 의미상의 구별을 지양하고 명사 수식이나 동사 수식 또는 명사 한정, 동사 한정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⁸⁾ 이정민·배영남(1987: 573)에서는 수식어(modifier)를 '종속적인 내심 구조를 갖는 구절은 머리어와 수식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수식어는 머리명사를 수식하거나(modify), 한정하는(qualify), 통사적으로 종속적인 구성성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수식은 통사적으로 '의존어+핵어'의 관계의 수식 구조에서 의존어가 가지는 통사적 기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는 후핵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존어는 핵어에 선행한다.

그런데 이때의 의존어는 필수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되기도 한다. Huddleston & Pullum(2002: 24)에서는 핵어와의 관계에 따라 의존어의 하위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⁹⁾

(4) the photographs of their dog that they had brought with them.

가. 보충어(complement): of their dog

나. 수식어(modifier): that they had brought with them

다. 한정사(determiner): the

(4가)에서 보충어는 명사의 의미적 필수성에 의해서 요구되지만 (4나)의 수식어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한국어의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는 의미적 필수성과 통사적 필수성에 의해서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보충어와 수식어를 구분하기보다는 모두 수식어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수식은 '피수식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거나 피수식어의 의미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적 기능으로 볼 수 있으며, 수식 구조에서 핵어에 의존적인 성분이 지니는 통사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접속'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접속은 '서로 맞대어 이음.'으로 정의되는데, 수식과 달리 문법론의 개념임이 명시되지 않았다. 접속 구조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 접속과

8) Matthews(1997: 229)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ype of syntactic construction in which a head is accompanied by an element typically not required by it."

9) Huddleston & Pullum(2002: 24)에서는 한정사의 기능은 명사구 구조에서만 나타나지만 보충어와 수식어는 다른 구성에서도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절 접속으로 구분된다.

- (5) 가. 고양이와 개 / 모자랑 신발이랑 / 너하고 나 / 쌀하며 고구마하며
 <접속 조사>
- 나. 형, 누나 / 서울, 부산 <단순 병렬>
- 다.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대등적 연결 어미>
- 라. 머리가 아파서 집에 갔다. <종속적 연결 어미>

한국어학에서 접속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된다. 먼저 접속은 (5가, 나, 다)와 같이 서로 대등한 통사 단위가 연결되는 구조를 가리킨다. 임동훈(2009: 90)에서는 접속이라는 용어 대신에 ‘병렬(coordin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병렬은 형식적으로 두 요소의 통사 범주가 같고 전체 구성의 범주 역시 구성 요소의 범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접속의 가장 엄격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복문 체계에서 종속절을 인정하는 않는 논의들은 모두 이러한 접속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엄격한 접속의 개념은 여러 종속절들이 길게 나열되어 연결된 문장을 수식으로만 설명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어학에서는 두 통사 단위가 연결되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5라)와 같은 광의의 접속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때의 두 통사 단위는 대등한 지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접속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특정 문법 형태소에 의해 통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통사적 개념이 존재해야 하는데, 문법론에는 접속 이외에는 적절한 다른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접속이 아닌 ‘연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문장에서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구성은 모두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연결은 통사 구조를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나는 먹었다’와 같은 생략문에서 두 성분은 접속이 아닌 단순히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광의의 접속 개념은 무엇보다 종속절의 존재 때문에 필요하다. 종속절은 연결 어미라는 문법 형태소가 두 절을 긴밀하게 연결한다는 점 외에도 의미 기능의 특성 때문에 접속된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문숙영(2019: 507)에서는 부사절(종속절)과 부사가 의미적으로 등가를 이룰 만한 것은 ‘시간, 장소, 방법’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 종속절을 부사절이 아닌 종속 접속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종속절이 나타낼 수 있는 ‘양보, 이유, 조건, 목적’ 등의 의미 기능은 수식이 아닌 접속의 방법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접속의 성립에 단순히 통사적 특성뿐만 아니라 의미가 관여할 수 있음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통사 단위 사이에 수식과 접속 관계가 형성될 때에는 이들 사이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이 관여한다. 그런데 수식과 접속은 모두 구성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통사적 기능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수식은 피수식어의 의미 범위를 제한하고 접속은 두 구성 사이에 다양한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기능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수식과 접속 구조에서는 의미 기능의 중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수식과 접속 구조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수식 구조에도 접속 기능이 나타날 수 있고, 접속 구조에도 수식 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이유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동일한 통사 구조가 수식으로도 분석되고 접속으로도 분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식과 접속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통사 구조에 따라서 순차성을 지니고 적용된다. 예컨대 전형적 수식 구조에서는 1차적으로 수식이 적용되는데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이 수식 구조에 2차적으로 접속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명사구와 복문을 중심으로 ‘수식+ 접속’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10) 본고의 이러한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규범 문법에서는 접속 부사가 수식과 접속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하나의 통사 구조가 수식과 접속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말한다. 또한 종속절과 내포절을 다룬 일부 선행 연구들에서도 수식과 접속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가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3.2절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3. ‘수식+접속’ 구조

3.1. 명사구의 수식과 접속

명사구가 확장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관형어의 수식은 받거나 다른 명사구와 접속하는 것이다. 명사구 수식 구조의 명확한 표지는 관형격 조사 ‘의’이고 명사구 접속 구조의 명확한 표지는 ‘와/과’ 등의 접속 조사이다. 먼저 이 조사들의 기능을 중심으로 명사구의 수식과 접속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명사구가 후행 명사구를 수식할 때에는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거나 수의적으로 생략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명사구의 수식 성분은 아래와 같이 필수적으로 관형격 조사가 결합해야 한다.

- (6) 가. 평화의 종소리/*평화 종소리
 나. 그의 어리석음/*그 어리석음
 다. 자식으로서의 도리/*자식으로서 도리

(6가)는 명사구 사이의 의미적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며, (6나)는 의미상으로 두 명사구가 ‘주어-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고 (6다)는 부사격 조사구 뒤에 명사구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명사구들이 연결될 때에는 관형격 조사 ‘의’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의’는 통사적으로 연결이 어려운 명사구들을 접속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¹¹⁾ 다양한 의미 관계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형격 조사 ‘의’는 종속적 연결 장치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김기혁(1995: 263)에서는 조사 ‘의’가 가진 기본적인 기능은 두 명사를 이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를 ‘종속적 연결 관계의 조사’라고 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김선호(2011: 138)에서도 ‘의’를 ‘종속적 연결 장치’로

11) 두 명사구 사이에서 생략할 수 없는 ‘의’의 접속 기능은 접속 조사 ‘와/과’의 특성과 동일하다. ‘철수와 친구들’과 같은 명사구 구성에서도 ‘와’는 생략될 수 없다. 즉, 명사구의 확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와 ‘와/과’는 모두 연결이 불가능한 단위들을 접속시켜 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규정하고¹²⁾ 의미적 상관성과 ‘의’의 필수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관형어 구성을 연결 구성과 비연결 구성으로 구분하였다.

- (7) 가. 연결 구성: 선행명사구와 후행명사구가 의미적 상관성이 없거나 희박한 구성.
- 나. 비연결 구성: 선행명사구와 후행명사구가 의미적 상관관계를 가진 구성으로 NP1의 NP2 구성과 NP1 NP2 구성으로 모두 실현 가능하며 NP1 NP2 구성은 합성어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성.
- 예: 집 오리(부분 구성), 대학생 아버지(등가 구성), 정보의 상호교환(논항 구성)

따라서 구조가 성립하기 위해서 ‘의’의 연결 기능이 필수적임을 고려하면 위의 (6)의 예들은 아래와 같이 수식과 접속 구조를 동시에 지닌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8) 가. [[평화의]접속 종소리]수식 구조
- 나. [[그의]접속 어리석음]수식 구조
- 다. [[자식으로서의]접속 도리]수식 구조

(8)은 확장된 명사구에 수식과 접속이 모두 적용됨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때 두 기능이 모두 대등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수식이 적용되어 확장된 명사구가 수식 구조를 지니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접속이 적용된 것이다. 이는 모든 관형어의 일반적인 기능은 수식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식 구성으로 분석되고, 수식 구성 중에서 ‘의’가 통사적으로 요구되어 후행 성분을 연결하는 관형어만 접속 기능을 갖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즉, (8)의 명사구들은 ‘① 수식 → ② 접속’과 같은 분석의 순차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수식 구조로 보이지만 위의 (8)과 다르게 1차

12) 김선호(2011: 138)에서는 관형격조사 ‘의’를 “문법격의 자격을 지닌 격조사이며 특별한 고유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명사구의 내적 구조에서 표제 전 요소를 확대하는 종속적 연결 장치이다.”라고 하였다.

접속 구조, 2차 수식 구조로 분석되는 확장된 명사구도 있다. ‘학교 친구’와 같이 명사구와 명사구가 아무 표지 없이 나란히 출현하면 일반적으로 선행 명사는 관형어가 되어 후행 명사를 수식하게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동격(apposition) 구성은 명사구가 나란히 있으나 일반적인 수식 구조와는 다른 통사적 특징을 지닌다. (9가)는 ‘자(子)’와 ‘호(號)’가 후행 명사구와 동격 구성을 이룬 것이고, (9나)는 ‘직업명’과 ‘지칭어’가 후행 명사구와 동격 구성을 이룬 것이다.¹³⁾

- (9) 가. 충무로 이순신, 백범 김구
- 나. 소설가 은희경, 시인 김소월

서정수(1994/2013: 576)에서 동격 관계는 ‘한 명사구가 동일 지시 관계에 있는 딱 명사구를 한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에서는 동격 관계가 동일 지시 관계에 있다는 점이 일반 수식 관계와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격 관계는 온전한 동격(full apposition)과 부분 동격(partial apposition)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아래와 같이 동격 관계에 있는 명사구에서 하나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 (10) 가. 충무공 이순신이 훌륭한 장군이다.
- 나. 충무공은 훌륭한 장군이다.
- 다. 이순신은 훌륭한 장군이다.

(10)에서는 (완전) 동격 구성의 동격어들이 분리되어 문장을 구성하여도 명제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명사구 접속에서 각 명사구가 독립적으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서정수(1994/2013)에서는 동격 구성을 ‘동격 구+ 머리(head)’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동격 구성이 통사적으로 수식 구조와 동일하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와 달리 이선웅(2007: 164)에서

13) 이는 대표적인 동격 구성의 예를 보인 것이다. 동격 구성의 다양한 예는 서정수(1994/2013), 이선웅(2007)을 참고할 수 있다.

는 동격을 ‘언어 외적으로 동지시적인 둘 이상의 명사구가 각 명사구의 중간에 아무런 언어 형식을 개입시키지 않고 병렬적으로 구성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는 동격 구성을 통사적으로 동일한 자격을 지닌 명사구가 나란히 있는 구성으로 보고 동격 구성의 정의에 수식 기능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격 구성에서 일부 선행 명사구가 의미적으로 수식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전형적인 수식 구조는 통사적으로 ‘의존어+ 핵어’의 구조를 갖기 때문에 위의 (10)과 같이 두 명사구가 분리되어 사용될 수 없다. 의존어만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동격 구성의 구조는 1차적으로 접속으로 분석하고 2차적으로 접속 구조 안에 수식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선행 명사구의 수식 기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의미적으로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구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격 구성의 명사구들이 병렬되기는 하지만 각 명사구의 내포적 의미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¹⁴⁾ 따라서 동격 구성에서는 아래와 같은 ‘① 접속 → ② 수식’과 같은 분석의 순차성이 존재한다.

(11) 가. [[충무공]수식 이순신]접속 구조

나. [[소설가]수식 은희경]접속 구조

이어서 명사구 접속 구조를 살펴보자. 절의 접속과 달리 ‘와/과, 하고’ 등의 접속 조사의 의해 확장된 명사구는 연결되는 두 통사 단위의 지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접속 구조임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접속 조사가 결합된 접속 구조는 수식 구조로 분석되기도 한다.

최호철(1995: 481-482)에서는 명사구의 확장과 관련하여 접속 구조와 수식 구조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접속과 수식 구조를 모두 관형어 구성으로 규정하여 수식을 더 기본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조사 ‘와’가 결합한 성분을 대등적 관형어, 조사 ‘의’가 결합한 성분을 종속적 관형어로 분류하였

14) 이러한 이유로 동격 구성은 병렬 구성이기는 하지만 ‘충무공 이순신 → 이순신 충무공’과 같은 자리 바꿈이 자연스럽지 않다.

다.15)

- (12) 수식 관계 - 관형어 - 종속적 관형어 - ‘-의’형
 대등적 관형어 - ‘-와’형

(최호철 1995: 489)

(12)와 같이 ‘와’ 결합 성분을 관형어로 본 것은 이 성분이 의미적으로 후행 명사구와 주종(主從) 관계를 가진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어의 접속문이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으로 나뉘는 것처럼, 명사구 구조도 대등과 종속의 짝을 이루어 하나의 체계를 이룰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의’가 결합한 관형어 구성과 ‘와’가 결합한 접속 구조는 통사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관형어+명사구’의 어순은 고정되어 있지만 ‘철수와 영희→영희와 철수’와 같이 조사 ‘와’가 결합한 접속 구조는 구성 성분의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등적 관형어’라는 표현도 성립하기 어렵다. 관형어는 핵어에 선행하는 의존어인데, 대등적이라는 말은 의존어와 핵어의 지위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16) 오히려 ‘의’가 일부 명사구에서 접속 기능이 있다는 점과 절 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의’형은 종속 접속, ‘와’형은 대등 접속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복문의 수식과 접속

한국어학에서 복문(複文) 체계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접속문에서 종속절의 설정 여부가 큰 논쟁이 되고 있는데, 종속절을 설정하더라도 논자에 따라서 종속절의 수식 가능성 여부에 차이를 보인다.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 종속절이 수식 기능을 가지는 것으

15) 도재학(2018: 99)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수용하여 ‘와/과’에 의한 명사구 연결을 대등적 관형어로 분석하였다.
 16) 목정수(2001: 78)에서는 한국어 문법에서 관형사라는 품사의 탄생은 일본어 문법 용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관사’와 인구어의 ‘형용사’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품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형어는 후행 명사구에 의존하는 성분이다.

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수식 개념의 이해가 쉽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13) 가.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나.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김영희(1987: 57)에서는 종속 접속문은 통사적으로 접속절끼리 대등한 관계에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한 수식 기능을 가져서 접속절 사이에 비대칭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여기에서는 수식을 의미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장요한(2007: 205)에서는 종속 접속문의 구조와 부사절의 구조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종속 접속문의 선행절이 수식절로서 기능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통사와 의미의 불일치라고 하였는데, 김영희(1987)과 동일하게 수식을 의미적으로 접근했지만 이와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국어에서 복문은 크게 접속문(接續文)과 포유문(包有文)으로 구분되고 접속문에는 연결 어미, 포유문에는 전성 어미가 사용된다. 그런데 일부 논의에서는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가 모두 접속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유현경(2002: 348)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내포절을 제외하고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가 결합된 내포절의 기능을 1차적으로 접속으로 보고 2차적으로 수식으로 보았다. 그리고 접속을 내포와 같은 층위로 보지 않으며 전성 어미의 일부가 가지는 기능적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였다. 이는 접속과 수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이때 분석의 순차성이 있다는 본고의 견해와 동일한 분석 방법이다.

(14) [+접속] - [+체언 수식]: 관형사형 어미

[-체언 수식]: 부사형 어미 - [+절수식]

[-절수식] - [구수식]

[단어수식]

(14)의 체계는 관형사형 어미가 접속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기존의 대등절과 종속절을 모두 수식 기능을 하는 부사절로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느 논의들보다 광의의 접속과 수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유현경(2002: 343)에서는 대등적 의미의 ‘-고’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이라는 근거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접속 부사 ‘그리고’나 접속의 기능을 하는 부사구로 바뀔 수 있다는 특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접속 부사가 수식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지는 논쟁이 되며, 의미적 유사성이 구조적 동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나, 다)와 같은 변형 가능성이 (15가)가 부사절이라는 주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¹⁷⁾

(15) 가. 누군가가 휠체어를 탄 그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었고 손에 장정된 권총을 쥐어 주었다.

나. 누군가가 휠체어를 탄 그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손에 장정된 권총을 쥐어 주었다.

다. 누군가가 휠체어를 탄 그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동시에, 손에 장정된 권총을 쥐어 주었다.

(유현경 2002: 343)

본고에서는 접속문과 포유문을 구분한다. 그리고 접속문에는 대등 접속뿐만 아니라 종속 접속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종속 접속을 인정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통사와 의미적 위상에 차이가 있어도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전술한 바와 같이 종속절이 부사절과 달리 ‘원인, 조건, 양보’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후행절과 접속될 필요가 있다.¹⁹⁾

17) 한국어의 모든 접속절을 부사절로 볼 수 없으며 대등절이 존재할 수 있음은 임동훈(2009)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등 접속문을 병렬문으로 부르고 병렬문의 독자적인 통사적 특성을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18) 절의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절 체계에 대한 본고의 입장만을 밝히고 복문에서의 접속, 수식과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자 한다.

19) 이와 관련하여 김건희(2012가: 76)에서는 부사절은 용언을 수식하는 ‘어떻게’로 환원할 수 있지만, 종속절은 그럴 수 없음을 논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부사절과 종속절을 구분하고 접속과 수식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다룬 논의에는 김건희(2012가: 85)가 있다. 여기에서는 수식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사절은 다른 문장에 안겨 다른 문장과 이어지는 접속의 기능도 가질 수 있지만 접속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종속절은 수식의 기능은 가지지 않는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수식과 접속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²⁰⁾

- (16) 가. 수식 ⇒ 접속
 나. 접속 ⇏ 수식 (김건희 2012: 85)

본고에서는 (16가)와 같이 수식 구조가 접속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16나)와 달리 접속 구조가 수식의 기능을 가질 수 있음도 인정한다. 즉, 종속절에는 접속 기능뿐만 아니라 수식 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²¹⁾ ‘종속절+주절’의 접속 구조에서 의미적으로 주절은 문장 전체의 중심이 되고 종속절은 ‘종속’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주절에 의존적인데, 이는 ‘의존어+핵어’의 수식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 (17) [[눈이 와서]수식 길이 미끄럽다]접속 구조.

(17)은 종속절이 1차적으로 두 절을 연결하는 접속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2차적으로 후행절의 의미를 제한하는 수식 기능을 가지고 있음

일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가. 어떻게 입었니? / 그들은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이 입었다. <부사절>
 나. *어떻게 길이 지니? /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종속절 - 원인>
 다. *어떻게 근로자가 없니? /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도 없다. <종속절 - 조건>
 라. *어떻게 저쪽에서 누군가 달려왔니? / 내가 집에 가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20) 본고에서 접속문의 접속과 수식은 김건희(2012가)의 논의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 논의를 통해서 접속과 수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통사 단위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21) 3장에서는 동격 구성이 1차 접속과 2차 수식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종속절 구성은 이러한 동격 구성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을 보여준다.²²⁾ 즉, 종속절에는 ‘① 접속 → ② 수식’의 분석의 순차성이 존재한다. 접속이 수식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대등 접속의 존재 때문이다.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은 모두 후행절과 연결되어 접속문을 형성하지만 양자는 수식 기능에 의해서 구분된다.

절의 접속 기능은 접속문뿐만 아니라 포유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포유문에서 관형사절은 관형어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수식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일부 관형사절은 수식 기능뿐만 아니라 접속 기능도 가질 수 있다. 앞의 유현경(2002)에서는 관형사절도 문장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절 접속의 하나로 보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관형사절에서 일부 유형은 접속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18) 가.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나를 배고프게 한다.

나. 김치찌개를 끓인다 → 냄새가 나를 배고프게 한다.

(19)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연속극

가. (너무 재미있어서) 화장실에 갈 수 없(게 하는)는 연속극

나. 그 연속극이 너무 재미있다 → 그 연속극은 화장실에 갈 수 없다.

(연재훈 2012: 445, 김건희 2012가: 83)

(18가)는 선행절이 후행절을 수식하면서 두 절이 연결된 연계 관형사절 구성이다.²³⁾ (18나)에서는 연계 관형사절과 모절의 내용이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과 관계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 절이 접속해야 함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연계 관형사절은 수식 기능뿐만 아니라 두 절을 접속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22) 종속절은 주절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속절을 수식할 수도 있다. 예컨대 ‘바빠서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냈어?’와 같은 문장에서 종속절 ‘바빠서’는 후행하는 종속절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를 수식하고 주절 ‘어떻게 지냈어’를 수식하지는 않는다.

23) 고영근·구본관(2018: 333)에서는 관형사절을 ‘관계 관형사절, 동격 관형사절, 연계 관형사’로 분류하여 연계 관형사절을 관형사절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연계 관형사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지은(2002)을 참조할 수 있다.

(19가)는 화용적 해석을 요구하는 관형사절 구성이다.²⁴⁾ 이 구성에서의 관형사절과 피수식어의 의미 관계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김건희(2012가: 85)에서는 연재훈(2012: 445)의 논의를 반영하여 (19가)와 같이 화용적 해석을 요구하는 관형사절은 느슨한 수식 구조를 형성하지만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의미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접속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²⁵⁾ 이 관형사절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어려운 성분들을 화용적 추론을 하게 하면서 하나의 단위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속의 기능을 갖는다.

요컨대, 관형사절이 접속문의 종속절이 나타내는 ‘인과, 조건’ 등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화용적 추론을 통해서 두 성분을 연결하면 종속절과 동일하게 접속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20) 가. [[김치찌개 끓이는]접속 냄새]수식 구조.

나. [[화장실에 갈 수 없는]접속 연속극]수식 구조.

(20)은 연계 관형사절과 화용 해석의 관형사절이 1차 수식, 2차 접속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형사형 어미가 사용된 관형사절이기 때문에 수식의 기능이 먼저 적용되고 두 절의 내용을 다양한 의미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접속의 기능이 적용된다.

4. 접속 부사의 수식과 접속

모든 성분이 충족된 완전문(full sentence)에 더하여 문장 밖에서 문장의 의미 확장에 관여하는 성분에는 접속 부사가 있다. 이 절에서는 접속 부사의 수식과 접속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규범 문법에서 ‘그리고, 그러나, 또는’ 등의 접속 부사는 문장 부사에

24) 연재훈(2012: 445)에서는 화용 해석의 관형사절을 성공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문맥에서 주어진 정보 등의 언어 구조 외적인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25)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접속이 수식에 따른 부가적인 접속이기 때문에 [+수식], [?접속] 정도의 자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포함된다. 남기심 외(1985/2019: 177)에서 접속 부사는 ‘앞 문장의 의미를 뒤의 문장에 이어주면서 그것을 꾸미는 부사를 가리킨다.’라고 정의된다. 즉, 접속 부사는 그 정의를 통해서 접속과 수식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품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접속 부사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면 접속 부사의 수식 기능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접속 부사는 후행 문장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구체화하는 기능이 없다. 아래의 (21가, 나)에서는 접속 부사의 유무에 따라서 후행 문장의 의미가 바뀌지 않는데 이는 접속 부사가 후행 문장을 수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식어는 의미적으로 후행하는 피수식어에 의존해야 하는데, 접속 부사는 후행하는 성분뿐만 아니라 선행하는 문장에도 의미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21가, 나)에서는 접속 부사가 선행 문장 없이 사용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수식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21) 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가.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나. 날씨는 좋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기분은 상쾌했다.

나. *그러나 나의 기분은 상쾌했다.

접속 부사의 통사적 특징도 접속 부사의 수식 기능을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

(22) 철수, 영희 그리고(또는) 민수가 학교에 왔다.

→ 철수, 민수 그리고(또는) 영희가 학교에 왔다.

(22)와 같이 통사적으로 접속 부사는 문장뿐만 아니라 명사구를 접속할 때에도 사용된다. 그런데 ‘그리고’나 ‘또는’이 명사구를 연결할 때에는 접속 부사의 앞뒤 성분을 명제 내용의 변화 없이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는 수식 구조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접속 부사는 접속의 기능만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접속사’라는 독립된 품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영근(1993:

87)에서는 접속 부사가 텍스트를 형성하는 기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사와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접속사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하였고, 조민정(2006: 233)에서도 접속 부사가 뒤의 문장을 수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접속사를 설정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어학에서는 부사라는 품사에 기능적으로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하고 있는데, 접속사의 설정은 부사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게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수식과 접속의 개념은 한국어의 통사 구조를 설명할 때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고는 한국어학에서의 수식과 접속의 개념을 살펴보고, 명사구와 복문의 수식과 접속 구조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서 접속과 수식 기능이 동시에 적용되는 명사구와 복문 구조가 있으며, 구조의 특성에 따라서 접속과 수식이 순차적으로 적용됨을 주장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한 ‘수식+접속’ 구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수식+접속’ 구조

통사 구조		예문	분석의 순차성
명사구 확장	필수적인 ‘의’ 연결 명사구	평화의 종소리	① 수식 → ② 접속
	동격 구성	충무공 이순신	① 접속 → ② 수식
절의 확장	종속절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① 접속 → ② 수식
	연계 관형사절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	① 수식 → ② 접속
	화용 해석의 관형사절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연속극	① 수식 → ② 접속

그리고 규범 문법에서 ‘수식+접속’의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논의되는 접속 부사를 살펴보았다. 접속 부사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고려하면 접속 부사는 수식 기능이 아닌 접속의 기능만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따라서 접속사라는 품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view on modification and conjunction structures in Korean

Ham, Byeongho(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usage patterns of modifications and conjunctions in Korean grammar and discussed syntactic structures in which modifications and conjunctions can be applied simultaneously. Firstly, The concepts of modifications and conjunctions are as follows. Modification is a semantic function that limits the meaning range of the modified component and is a syntactic function of a component dependent on the core word in the modification structure. And conjunction is a function that connects two syntactic units and can express various meanings. Next, the syntactic structures to which both modification and conjunction are applied are noun phrases and complex sentences. In a noun phrase, a noun phrase in which the adnominal case particle is necessarily combined has a structure that has the direction of ‘① modification → ② conjunction’, and an appositive construction has a structure that has the direction of ‘① conjunction → ② modification’. In complex sentences, subordinate clauses have a structure with the direction of ‘① conjunction → ② modification’, and linking adnominal clauses and adnominal clauses in pragmatic interpretation have the structure with the direction of ‘① modification → ② conjunction’. Finally,

conjunctive adverbs only have a conjunctive function, not a modifying function.

Key words : modification, conjunction, adnominal case particle, appositive construction, subordinate clauses, linking adnominal clauses, conjunctive adverb

[참고문헌]

■ 단행본

-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고영근·구본관(201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김선호(2011), 『한국어 관형어 연구』, 역락.
도재학(2018), 『국어의 문장 의미와 어휘 의미』, 역락.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2002), 『문법』, 교육 인적 자원부.
서정수(1994/2013), 『국어문법』, 집문당.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이정민·배영남(1987), 『언어학 사전』, 박영사.
임유중(1999),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조민정(2006), 부사, 『왜 다시 품사론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논문

- 김건희(2012가), 부사절과 관형사절의 수식, 『어문학』 118, 한국어문학회, 63-91면.
김건희(2012나), 부사절의 수식과 접속-종속 접속절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글』 297, 한글학회, 161-203면.
김영희(1987), 국어의 접속문, 『국어생활』 11, 국어연구소, 56-66면.
김원경(2018), 한국어 접속사의 설정 기준, 『언어와 정보 사회』 34, 서강대 언어정보 연구소, 35-58면.
김지은(2002), 관형사절의 한 유형에 관한 연구, 『애산학보』 27, 애산학회, 157-185면.
목정수(2001),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대한 연구, 『언어학』 31, 사단법인 한국 언어학회, 71-97면.
문숙영(2019), 과연 한국어의 종속접속절은 부사절인가, 『언어』 44, 한국언어학회, 489-532면.
연재훈(2012), 유형론적 관점의 한국어 관계절 연구, 『국어학』 63, 국어학회, 413-457면.
유현경(2002), 부사형어미와 접속어미,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333-352면.
이선웅(2007), 국어 동격 명사구의 개념과 유형, 『어문학』 98, 한국어문학회, 159-185면.
임동훈(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국어학회, 87-130면.
장요한(2007), 문장의 확장에 대한 소고, 『시학과 언어학』 14, 시학과언어학회, 191-

220면.

최호철(1995), 국어의 보어에 대하여, 『한국어학』 2, 한국어학회, 447-490면.

함병호(2018), '감탄사, 문장' 구성에 대하여, 『동악어문학』 76, 동악어문학회, 125-156면.

Huddleston, R & G. K. Pullum(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tthews, P. H.(1997), *Concise Dictionary of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